

삼정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7 June_Vol.173

today
for
tomorrow





Cover story

Vision 2020을 함께 이뤄 갈
인재를 기다립니다!

삼고초려(三顧草廬), 이 유명한 고사성어는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했던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재가 최고의 자산’인 삼정KPMG는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미래의 주인이 될 삼정인을 기다립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
다양한 경력 개발의 기회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
일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삼정KPMG입니다.

삼정KPMG는 Vision 2020을 함께 이뤄 갈 인재를 기다립니다.

Contents

June 2017 Vol.173 삼정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Issue Focus 2021년에 시행될 IFRS17,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 06 Team Story 삼정KPMG 투자자문팀
- 08 Client+ DGB대구은행
- 10 Market Reader 바야흐로 5G 시대,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라!
- 12 Expert's Advice 2018년 도입되는 국외전출세 내용과 준비 방안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신입 회계사 채용 특집

- 15 About 삼정KPMG 2017 신입 회계사 채용의 모든 것
- 17 그땐 그랬지! 삼정KPMG를 만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행복한 일터

- 21 Culture Relay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 22 인재양성소 NCP로 새로운 경력 개발에 나선 삼정인!
- 24 Talk+Play+Love 현대인에게 핫한 필라테스 운동 체험기
- 26 Culture & Etiquette 중부 유럽의 중심, 체코의 문화와 에티켓
- 28 KPMG Story 2017 PPC Officer Workshop 개최
- 30 Samjong News 삼정KPMG 전문성과 신뢰 강화 위한 보직인사 단행 外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보명C&I(02-2274-4545)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 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시행될 IFRS17,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최근 확정 발표되어, 4년 뒤인 2021년부터 국내 보험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Issue Focus>에서는 IFRS17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 보험사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IFRS17, 보험자-투자자에게 도움 될 것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될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기준서(IFRS17 Insurance Contracts Standards)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해 2017년 5월 18일 확정·발표됐다. 이는 1997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04년 1단계 기준서(IFRS4), 2010년 1차 공개초안, 2013년 2차 공개초안 발표에 이어 20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것으로,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이다. IFRS17의 제정은 보험산업의 다양한 회계적 접근 방법을 한 가

지로 통일시킴으로써, 정보의 적시성(Updated) 및 비교 가능성(Comparable)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이며, 양질(High Quality)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수익인식의 변화 등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

이번에 확정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기준서(IFRS17)는 ▲보험부채를 보험사가 보장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과 서비스 제공에 따라 보험사가 인식할 미실현이익인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의 합으로 구성할 것. ▲계약에 따른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기대하는 금액(투자요소 제외)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보험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확정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험업계는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의견이나, 기준서 해석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보험사마다 상품구조가 다른 만큼 새로운 회계기준이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당장 오는 연말부터 IFRS17 선제적 대비를 위한 수정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가 시행되고,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비율(RBC)이 오는 2019년 말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본여력이 악화되는 보험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 보험업계는 매우 분주하다.

보업업계, IFRS17 대응전략 마련 및 자본건전성 개선 추진 필요

새로운 제도가 연이어 도입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보험부채 평가 방식의 변경으로 상품 수익성 변화가 예상된다. IFRS17 기준서에서는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보증 및 계약자행동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 보험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산출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상품 수익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부채 증가 및 자본 감소로 자본 확충을 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되었던 보험계약들을 현행 저금리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므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본 부족으로 인한 낮아진 지금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한 결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품판매 당시 미리 세팅해 놓은 준비금 테이블을 활용하여 준비금 결산을 수행하였으나, 향후에는 매 평가시점마다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결산시점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결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IFRS17 도입 및 도입 이후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는 보험사에 재무적 영향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경영관리, 마케팅, 자산운용, 리스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부문별로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의 가치가 재무제표를 통해 투자자, 감독기관 등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매출 위주의 외형적 경영전략보다는 가치/손익 중심의 내실을 강화하는 경영전략에 보다 더 무게중심이 쓰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험업계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경영 전반의 대응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컨설팅, 자본 부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 마련, 시가평가 중심의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삼정KPMG, 향후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컨설팅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여 매우 분주한 가운데, 국내 대형 회계법인, 계리법인, 전략컨설팅업체 등 IFRS17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도 기준서 해석,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업체와의 컨소시엄 등으로 업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삼정KPMG 역시 보험계리 전문인력 확충, 금융감독원 및 회계기준원 TF 참여, 법인 내 본부 간 적극적 협업 등을 통해 보험업계의 외부 컨설팅 수요에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당 법인은 최근 업계의 가장 큰 대어로 손꼽히는 동부화재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어 ING생명 프로젝트도 수주에 성공하여 IFRS17 시장에서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IFRS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업계 평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KPMG Global 인력과의 공조를 통한 풍부한 해외사례 연구,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경영전략 제안 등을 위해 법인 내 회계, 계리, 컨설팅 본부 간의 협업체계를 앞으로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CONTACT US

ACTUARIES 조영환 상무

Tel. +02-2112-0420 E-mail. younghwancho@kr.kpmg.com

고객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삼정KPMG 투자자문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국내외 기관은 투자 전략 정교화, 자산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체투자시장의 확대에 따라 자산운용사, GP Company들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정KPMG 투자자문팀은 대체투자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기업투자자들을 자문하고 있다.

| 항공산업 성장에 따라 항공기 투자 기회 지속 증가할 것

국내 주요 연기금들은 지속된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 투자 이외에 점차 PEF, 부동산과 같은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국내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보수적인 자금 운용방법을 선호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기금운용정책을 투자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세 연기금은 대체투자 금액을 각각 2016년 64조, 2.2조, 0.9조에서 2017년 72조, 2.5조, 1.4조로 늘릴 계획이며, 대체투자 대상은 부동산, 원자재 등에서 최근에는 항공기, 인프라 등으로 투자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항공산업 성장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항공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실물자산 투자로 각광 받던 선박금융이 해운업황 침체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장기적 자산가치의 안정성이 입증된 항공기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항공산업의 성장에 따른 항공기 금융 규모 자체가 증가했고 바젤III 등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디레버리징 은행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항공기 투자 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경쟁력을 갖추면서 항공기 투자 기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투자 기회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을 통해 성공적인 수요 공급 Match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최초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영화펀드 설정 및 성공적인 Closing 달성,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사업자가 제작 또는 투자자로 참여하는 영화/뮤지컬/방송/게임 콘텐츠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문, ▲미국 PIPE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투자자문, ▲국내 기관투자자의 첫 미국 지역은행 상장주식의 사모투자를 위한 투자자문, ▲미국 DIP (Debt in Possession) 펀드 투자자문, ▲국내 최초의 DIP 투자펀드로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출형태의 투자집행을 위한 자문, ▲터키 발전회사 대출채권 투자자문, ▲터키 최대 민영발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자문 등 대체투자 분야의 랜드마크를 세우는 성과들을 이뤄왔다.

또한, 삼정KPMG 투자자문팀은 국내외 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적시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본부 내 자발적인 스터디 및 의견 공유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각종 대체분야 Sector(부동산, Private Equity, 인프라, 헤지펀드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First Mover로서 자부심을 지켜가며 투자자문업에 임하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자문팀은 각 투자자에게 맞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투자전략과 우수한 투자성과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국내외 FI 및 SI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주요 GP Company, 연기금, 보험사, 캐피탈사, SI를 포괄하는 폭넓은 Network를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문업뿐 아니라 M&A, Financing 등의 다양한 용역 수행 시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 업계 최초 투자자문 전담조직, 삼정KPMG 투자자문팀

삼정KPMG 투자자문팀은 업계 최초로 투자자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체투자시장의 깊은 이해와 통찰력 있는 자문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투자업계 내에서 깊은 신뢰를 구축해왔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국내외 투자자의 다양한 필요와

삼정KPMG 투자자문팀 주요 서비스

PE 운용사(GP) 자문

Fund 설립 및 Fund Raising



PE 운용사(GP) 고객의 성공적 Fund 설립을 위해 각 Fund 유형별 (블라인드, 목적형, 기업연계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und 전략 수립, 제안서 작성, Fund Raising 및 LP 승인, 설정 후 관리 등 Fund 설립 관련 전 과정을 통합 자문하고, GP · LP 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높은 성공률을 담보한다.

기관투자(LP) 자문

투자 Consulting 및 Deal Sourcing



LP 고객이 직면한 다양한 투자 관련 이슈와 관련된 Solution을 제공한다. 전략적 자금운용 방안 수립, 펀드 선정 컨테스트 프로세스 지원, 부실자산 관리를 비롯한 투자 사후 관리를 통해 LP의 수익 창출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투자 성향 및 수요에 최적화된 Deal을 발굴, 검토하여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 자문

시장 자금 수요, 공급 Matching



다양한 Investor Pool을 제공하고, 자본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를 분석, 자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 Needs를 성공적으로 Matching하여 투자 기업과 피투자 기업 모두의 성공을 지원한다. 또한, 여유 자금 운용을 위한 Family Office 설립 및 운영 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업/개인에 대한 전문적 투자 자문도 실행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불어, 대체투자 관련해서는 '삼정KPMG 투자자문팀에 의뢰하면 된다'라는 투자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그리고 처음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First Ma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삼정KPMG 투자자문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금리가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 투자 이외에 PEF, 부동산과 같은 대체투자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삼정KPMG 투자자문팀은 대체투자 확대를 원하는 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희망하는 기업, 개인을 위해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급증하는 개인고액자산가를 위한 Family Office*설립, 운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2007년부터 누적된 투자자문 경험, 관련 업계의 네트워크, 해외 딜 소싱 역량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이동 상무이사(본부장)

Tel. 02-2112-6862 / E-mail. yidongkim@kr.kpmg.com

"삼정KPMG 투자자문팀은 국내 기관 투자자 및 다양한 분야의 고객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예비 투자 단계부터 투자 관리 단계까지 전반적인 자문이 제공 가능한 One-Stop Service Platform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부는 100~1,000억 규모의 Middle Market에서의 인수/합병, 자금조달에 특화되었습니다. 중소형 Deal의 경우 Sourcing부터 재무실사, 인수/매각자문, 자금 조달, PMI까지 최고의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영걸 이사

Tel. 02-2112-0749 / E-mail. younggulpark@kr.kpmg.com

* 개인, 가문의 자산을 운영하고, 승계를 준비하는 투자 사무소로 미국의 롤펠러,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Family Office가 대표적이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문팀 될 것

국내 주요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고수익 창출 및 수익 다변화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글로벌 대체 투자에 대한 저변 확대 관심도 불가피하다. Sector별로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익숙한 부동산, 사모펀드, 인프라 투자 등에서 좀 더 나아가 아직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Distressed 자산, Hedge Fund, Commodity 등의 투자 자산이 새로운 관심 분야로 떠오를 수 있다.

더불어, 국가별로는 빠른 경제 성장과 고수익의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기회들이 속속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투자자문팀은 지속적인 연구와 세계 대체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 및 트렌드 파악 등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처를 소개하고 만족스러운 투자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창립 50주년, 100년 은행을 향해 나아가는 DGB대구은행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DGB대구은행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이제는 100년 은행을 지향하며 고객만족, 윤리의식, 기업문화, 영업방식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역량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은행, 글로벌 스탠다드 뱅크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수은행 10연패' 달성

DGB대구은행은 1967년 최초 지방은행 출범 이후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DGB대구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하는 DGB금융그룹은 창립 6년 차를 맞이하며, 지역밀착형 종합금융그룹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지역 대표 은행을 넘어 글로벌 세계 은행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DGB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수은행 10연패'의 위엄을 세우는 등 명실상부 고객에게 더 가까이, 더 큰 혜택을 주는 종합금융 그룹으로 성장했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2006년부터 실행한 제도에서 DGB대구은행은 10년 연속 최우수은행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민원발생 건수와 해결은 물론이고, 금융회사의 사전적인 소비자보호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번 제도에서 DGB대구은행은 소비자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하고 낡은 관행과 제도를 찾아내 개선하고자 하는 '선대응' 전략으로 고객 불만을 최소화했다.

또한 지난 한 해 DGB금융그룹은 전반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먼저, DGB금융그룹의 7번째 자회사인 DGB자산운용이 출범했고, 최초 해외법인 DGB라오 리싱 출범으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

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지방금융지주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주주로 참여해 디지털 금융시대를 선도할 기반도 갖췄으며, 주력 자회사인 DGB대구은행은 수도권 영업망을 확대하고, 아이M뱅크 등의 핀테크 사업으로 비대면 영업을 강화했다.

| DGB대구은행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핀테크 서비스 강화

핀테크 시대를 맞이하여, DGB대구은행은 2017년 더욱 강화된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격적인 대고객 영업에 대응하고, 디지털 금융 고객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새 단장, 비대면 예금·펀드센터 오픈 및 아이M뱅크 2.0 버전 출시, 그리고 복합 생체인증을 도입했다.

DGB대구은행의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은 UX/UI 및 개인화 등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좌우패널을 이용한 멀티플렉스 구조의 레이아웃을 적용하여 화면흐름의 단절감 없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특히 중점을 둔 것은 개인화 뱅킹 시스템의 강화로 고객 개인별로 주로 쓰는 뱅킹 서비스를 직접 설정하면, 이후에는 개인화 영역에 고정 배치되고, 로그인 후 개인화 영역에서는 총자산, 카드 결제 예정금액, 예적금·대출만기일, 펀드 수익률 등을 한눈에 볼



1. DGB대구은행 제2분점 전경
2. DGB대구은행 제2분점 영업부
3.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수은행 달성 제막식
4. DGB대구은행 박인규 은행장의 아이M뱅크 2.0 버전 시연 모습



해외 간편 송금, 스마트 펀드 어드바이저 기능 등을 통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더했으며, 원터치 거래 잠금기능을 통한 보안성도 더욱 높였다. 아이M뱅크 모바일 지점은 250여 개 전 영업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On-Off라인 O2O 영업점 연계영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새로운 50년을 향한 DGB New Start'

창립 50주년을 맞은 DGB대구은행은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도약하는 시점에 있다. DGB대구은행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 위기대응 전략으로 클린뱅크 확립과 경영효율 극대화를, 둘째 미래대응전략으로 수익창출역량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셋째 그룹 일체화와 시너지 강화를 위한 DGB Be One의 지속실천으로 DGB대구은행의 강한 생존력을 증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DGB대구은행은 계열사별 상품과 서비스 품질혁신을 통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가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위기대응을 위해 클린뱅크 확립,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해 건전영업 문화정착, 실효적 리스크관리, 규제환경 변화 대응, 대면·비대면 채널 운용 효율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앞서가는 미래대응으로는 핀테크와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강화, 영업 권역 확장과 비은행업 사업다각화 지속 추진 등으로 시장지배력과 성장 잠재력을 확대해 가고자 한다. 그룹 일체화와 시너지 강화를 위한 DGB Be One을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DGB가족이라는 일체감으로 계열사 간 연계사업과 공동 마케팅을 발전시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디지털 금융을 비롯한 금융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 DGB맨들은 '봉정만리(鵬程萬里)'의 정신으로 2017년을 헤쳐가고 있다. 중국 고전 장자에 나오는 '봉정만리'는 '원대한 포부를 세우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목표를 달성 한다'는 뜻으로 새로운 50년의 출발선에서 DGB대구은행은 경영목표를 '새로운 50년을 향한 DGB New Start'로 정하여 봉정만리의 의지로 힘찬 도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책임인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 펼쳐가고 있다.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DGB대구은행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펼쳐가기를 기대해 본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대출센터에 이어 올해 비대면 예금·펀드센터를 새롭게 오픈하여 고객이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상담원과의 화상 채팅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권 최초로 화상과 채팅을 동시에 구현하는 시스템을 갖춰 편의성을 더했다. 특히 은행거래가 없는 신규고객인 경우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를 통해 예금,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상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대학생 및 고객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선보인 아이M뱅크 2.0 버전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로 구성됐다. 금융권 최초이자 가장 주목할 만한 서비스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부터 서류제출, 등기, 약정까지 단 한 번도 고객과 대면 없이 100% 스마트폰을 통해 2~3 영업일만에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또, 플라스틱 교통카드 스마트폰 충전기능을 통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생체인증을 통해 지문·홍채의 바이오 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에서는 인증서와 보안매체 없이 한 번에 이체업무가 가능하게 되어 뱅킹 편의성이 크게 증대됐다. 이외에도 DGB뱅크머니 서비스를 통한 휴대폰번호 간편 송금, 가맹점 바코드결제, 더치페이, 경조금 기능과

바야흐로 5G 시대,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라!

1990년대 2G, 2000년대 3G, 2010년대의 4G를 거쳐 10년 주기로 진화한 이동통신은
다가오는 2020년 5G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 5G는 무엇일까?

5G는 5세대 이동통신의 줄임말로, 기존 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1 \rightarrow 20\text{Gbps}$), 10배 많은 초연결($0.1 \rightarrow 1/\text{m}^3$), 10배 짧은 저지연($10 \rightarrow 1\text{ms}$) 기술을 의미한다. 5G 이전의 이동통신 기술이 전송 속도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5G는 전송 속도뿐만 아니라 지연시간, 연결 밀도, 에너지 효율 등 13개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성능 수준을 정의하고 있다. 정의된 기술 성능 수준을 기반으로 정해진 국제 표준 기술은 세계 모든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 표준 기술에 관한 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세계 모든 기업·기관들로부터 로열티를 벌어들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선진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 동시에 관련된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국제 표준화 단체인 3GPP에서 5G 기본 요건을 정의하는 등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세계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 5G가 가져올 서비스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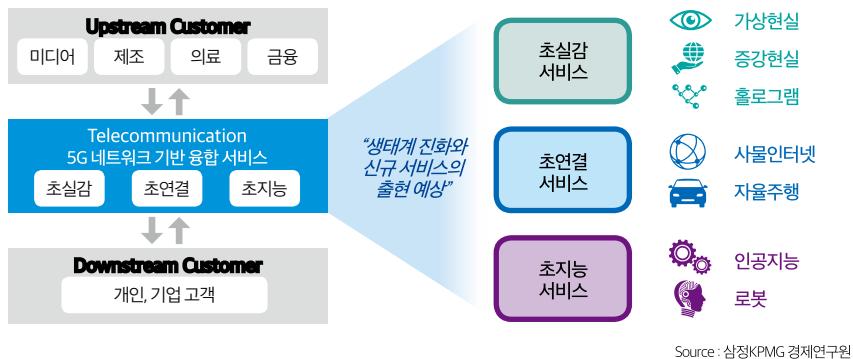
5G 시대에는 초실시간, 저지연, 초고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의 확산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경험하게 될 서비스는 크게 초실감 서비스, 초연결 서비스, 초지능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5G 시대가 임박한 만큼 기업들은 5G 기반의 신기술과 융합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초실감 서비스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는 사실감과 현장감을 제공하고 경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초연결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를 통해 자율화된 미래와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초지능 서비스는 빠른 데이터 처리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5G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상화된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 5G의 시대,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 결정에 있어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술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최근 동향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Issue Monitor>에 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화두인 '5G'에 대한 정의와 5G가 가져올 서비스 변화 및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은 익히 강조됐으나 5G로의 진화에서 이는 더욱 중요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5G 이동통신은 단순한 네트워크 기술이라기보다는 ICT산업은 물론 타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기반 기술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5G 기술의 발달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Standardization)', '협력(Collaboration)', '서비스(Service)' 세 가지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

먼저, 표준화이다. 5G 표준은 상용화 이후 기술로 수입 기반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업의 성공여부는 특허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2017년 기업들은 5G 후보 기술들을 접수하고 5G 후보 기술로 시범 서비스를 발굴·시연하는데 집중함으로써 국제 표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국가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민간 기업 역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 5G 표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각 기업은 협의체에 참여하며, 타 기업의 기술 개발 동향 및 계획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보 기술의 선제적 제안, 협력 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5G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5G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선발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5G와 함께 등장할 초실감, 초연결, 초지능 서비스는 주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변화와 소비자의 니즈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사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CONTACT U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최연경 연구원

Tel. 02-2112-7769

E-mail. yeonkyungchoi@kr.kpmg.com

2018년 도입되는 국외전출세 내용과 준비 방안

2017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국외전출세(Exit Tax)'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외전출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도입 배경은 무엇인지 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팀의 정병수 상무에게 일문일답으로 들어본다.



삼정KPMG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팀 정병수 상무

Q. 국외전출세(Exit Tax)란 무엇인가요?

A. 국외전출세(Exit Tax)는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원래 거주지의 소득에 대해 탈루한 후 다시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의 '국제적 조세 회피 행위 방지 및 과세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5년 10월 OECD의 BEPS 최종보고서와 2016년 1월 EU의 조세 회피방지 패키지에서도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Exit Tax'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it Tax'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Q. 국내 도입된 국외전출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우리나라는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권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작년 말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으로 소득세법에 국외전출세를 신설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부터 적용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국외전출자 중 출국일 10년 전부터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이면서 국내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며, 출국일까지 납세관리인과 국내보유주식 현황을 신고하고 출국일까지 발생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재입국, 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와 실제 주식 양도가액이 출국일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조정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5년간(유학 등으로 출국 경우 최장 10년) 출국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향후 전망 및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국외전출일'에 대한 실질판단 여부 등 국외전출세 최초 시행 이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거주지 변경으로 역외탈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 간 이종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세조약을 통한 이종과세 방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Exit Tax' 도입의 정당성이 논의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로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국내 주식으로 한정해 신설됐으나 향후 시행 성과에 따라 과세대상을 국내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혹은 국외 자산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현행 25억 원 이상(코스닥은 20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 2020년 4월 1일부터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므로(지분율 기준은 현행과 동일) 내년 4월 1일부터는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따라서,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의 확대로 국내외 전출입이 점차 활발해져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외전출세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 <맛있는 경제>는 알면 더 좋은 시사 및 경제 상식을 소개한다. 최근에 이슈를 모은 용어와 통계는 무엇인지 한 눈에 쉽게 살펴보자.

뉴칼라 (New Collar)

'블루칼라(Blue Collar·육체 노동자)'도, '화이트칼라(White Collar·전문 사무직)'도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할 노동 계급을 의미하는 뉴칼라(New Collar). 대학을 졸업하는 등의 학력과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적응한 노동계급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속에서 탄생할 직업을 통칭한다.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IBM의 CEO인 지니 로메티로, 그는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앞으로 다가올 뉴칼라 시대에는 노동력이 아닌 데이터가 중심이 될 것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연구, 개발하는 뉴칼라가 미래를 이끌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그루밍족 (Grooming)

원래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을 시키는 데서 유래한 신조어로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를 의미한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남성 화장품 소비 국가 1위로, 지난 해 한국 남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1조 293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10년간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남성 화장품 업계는 2020년까지 매년 5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렌드연구소 인터파션플래닝'이 지난해 드럭스토어를 이용한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39%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 32%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출처: 다음백과

반도체 호황 영향…제조업 국내 공급 역대 최대 증가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1분기 국내 제조업 공급이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국산·수입이 모두 늘면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7.1% 증가했다.

제조업 국내공급 추이



삼정 **KPMG**

신입 회계사 채용 특집

I. About 삼정KPMG

II. 그땐 그랬지!

today
for
tomorrow

삼정 KPMG의 내일을 함께 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행복한 일터=삼정KPMG! 2017 신입 회계사 채용의 모든 것

2017 신입 회계사 공채 시즌을 맞이하여, 삼정KPMG는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함께 이뤄 갈 미래 인재를 만날 준비에 나섰다. 예비 삼정인을 위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삼정KPMG에 대한 소개와 공채에 대한 일정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2년 연속 Big4 최다 인원을 채용한 삼정KPMG의 채용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자.



채용설명회를 통해 들여다 본 삼정KPMG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삼정KPMG가 2020년에 이뤄 갈 비전으로, 비전 달성을 위한 최우수 전략은 ‘인재 육성 및 확보’이다. 올해도 삼정KPMG는 인재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 ‘2017 신입 회계사 공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우수 인재 유치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삼정KPMG 본사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삼정인을 만나기 위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6월 조기 입사자를 위한 공인회계사 기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삼정KPMG 홍보 영상으로 시작하여, 삼정KPMG의 비전 및 목표를 담은 KPMG Story, 산업별 서비스 라인 및 본부 소개 등에 대해 살펴봤다. 특히, 세종대왕의 생생지락(生生之樂)을 본받은 행복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안내와 삼정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파견 기회 및 해외 연수 지원 등 인재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는 삼정KPMG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파트너 및 회계사들이 경험한 삼

정KPMG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션을 통해, 회계사로서의 생활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파트너는 “삼정KPMG는 매년 지속 성장을 기록하는 성장률이 높은 법인”이라며, “삼정인이라면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니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고 싶은 분이라면 삼정KPMG를 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 Audit/Tax/Deal Advisory에서 근무하는 2년 차 회계사들이 각 Function에 대한 소개와 장점을 전하며, 올해부터 희망 본부를 선택해 입사하는 방식인 ‘본부 전속 채용’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함께 나눴다. 한편, 삼정KPMG는 오는 6월 26일 공인회계사 기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입사 채용에 이어 9월 정기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며, 법인 리크루팅 TFT와 함께 서울 주요 학교 등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어, 삼정KPMG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공인회계사 기합격자들이 바라보는 삼정KPMG!

“

삼정KPMG의 회계사 분들은 바쁜 생활 속에도 법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후배로서 선배 회계사님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삼정KPMG가 현재까지 이뤄온 성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삼정KPMG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박기현 학생(경영학 전공)

“

아직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저로서, 삼정KPMG에 대해 처음 듣 생각은 ‘여기서 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경우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채용설명회에서 법인을 소개해주는 선배 회계사님들에게서 열정을 느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동원 학생(경영학 전공)

“

삼정KPMG는 2016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가장 가고 싶은 법인이었습니다. 본사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깔끔하고 전문성을 담은 공간과 선배 회계사님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법인보다 훨씬 조직의 성장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장도 중하게 여기는 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삼정KPMG에 더욱 입사하고 싶어졌습니다.”

황인영 학생(경영학&사회복지 전공)



인사 채용 담당자에게 듣는 2017 신입 회계사 채용, 그것이 알고 싶다!

Q. 지난해와 달라진 신입 회계사 채용 제도는 무엇인가요?

A. 2017년 신입 회계사 채용부터는 전년도와 달리 입사방식을 본부소속 입사로 일원화했어요. 지원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본부나 Function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 감사본부는 최대 2개의 본부를 지망할 수 있으며, Tax와 Deal Advisory는 특성화된 업무를 선택할 수 있어요. 6월 26일에 오픈 예정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 작성 전 안내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Q. 법인의 차별화된 전략 및 입사 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입사와 함께 삼정KPMG만의 Junior(1~3년 차) 집중 육성과정인 GEP(Global Elite Program)에 입과하게 되요. 또, 신입 입문교육을 시작으로 각 직급 연차에 맞춰 Technical Knowledge, Professionalism, Global Mind 교육을 진행하고, GEP 성적우수자에게는 법인 대표가 주관하는 시상의 영예와 함께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Career를 찾을 수

있도록 본부이동제도인 New Challenge Program도 운영 중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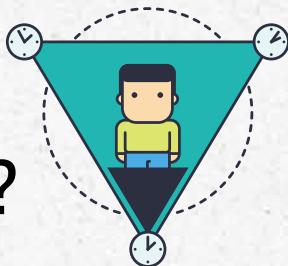
Q. 신입 회계사 채용전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2017년부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인사팀(PPC)에서 면접합격자를 개별 통보하며, 인성검사는 개인의 성장 가능성, 조직 적합성 등 기본적인 소양을 확인하는 검사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Q. 끝으로 예비 삼정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삼정KPMG의 NO.1 전략은 ‘우수 인재 확보와 육성’인데요, 우수한 인재들이 152개국의 글로벌 KPMG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지속적인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삼정KPMG는 훌륭한 인재들을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공정한 보상으로 예우하고, 임직원 간의 다양한 소통의 기회 마련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 등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어요.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삼정KPMG에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신입 시절의 나 vs 현재의 나, 삼정KPMG를 만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7 신입 회계사 채용을 앞두고 회계사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예비 삼정인을 위해 삼정인 9명이 법인에 처음 입사했을 당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봤다. 삼정KPMG를 만나 한층 성장된 이들의 스토리를 들어보자.

강인혜 상무이사(ICE1)

“법인의 성장과 함께 따뜻한 조직문화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줬어요”

절었던 Associate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밖에 안 나와요. 2004년도 기말감사가 한창일 때 2년 차 Associate였고, 당시 배우 고현정, 조인성 주연의 드라마(봄날)가 2005년도 1월 주말 저녁 9시에 방영됐었죠. 주말에 일하다 드라마 시간이 다가오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했는데, 묵묵히 일만 하는 인자지가 어찌나 야속했는지 몰라요. 방영 10분 전에 솔직하게 집에 가서 TV 보고 다시 오겠다고 했더니 인자지가 벌컥 화를 내면서 그냥 퇴근하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 정도로 개념 없던 제가 인자지를 담당하며 내 고객, 나의 팀원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게 됐어요. 약간의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처음 인자지를 담당했던 원주문화방송 Closing Meeting 시간에 엄청 떨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덧 세미나, 교육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잘 모르는 회사 담당자에게도 스스럼없이 연락하는 파트너가 되었네요. 삼정KPMG 감사본부가 SOX, IFRS 도입 등 굵직한 제도의 변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인자지, 매니저를 담당하면서 소극적이고 숫기 없던 성격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이고 활달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법인의 조직문화 및 우리 본부의 따뜻한 분위기가 저를 이 자리까지 견인한 것 같네요.

지동현 이사(IM1)

“사회초년생에 꺾은 한계를 딛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 Ing!”

회계사 시험 합격에 기쁨과 주변 지인들의 부러움 속에서 시작한 신입 시절이었지만, 처음으로 투입한 3분기 검토업무의 어려움과 때때로 요청받은 영문보고서 Drafting 작업에서 개인의 한계에 부딪히고 극복하기를 반복하던 어려움의 시절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돌아보면, 연차에 맞춰 주어진 도전과제가 전문가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성장의 촉매제가 된 삼정KPMG의 직급별 교육과 해외파견 생활은 더 큰 꿈을 실현해줄 단단한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약 3년간의 체코공화국 파견 중에는 동유럽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수많은 한국 기업의 안내자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놀려가는 데 기여했고, 이러한 국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와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중요한 글로벌 대기업의 회계 감사 및 비 감사업무에 있어서 법인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기회를 선별할 수 있는 ‘글로벌 감각’을 가진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어요. 예비 삼정인 여러분! 수많은 기회가 주어진 삼정KPMG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삼정KPMG에서 성장한 여러분이 이끌어 갈 거라고 믿어요.



박상훈 S.Manager(IM1)

‘나 자신보다, 고객과 팀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로 신입 시절과 현재의 제 모습을 비교해봤네요. 먼저, 가장 달라진 점은 나 하나 잘하기에도 바빠서 남 생각을 못 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보다는 함께 일하는 팀과 고객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해야 하는지가 중요했다면, 현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언제 집중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어진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큰 그림을 보지 못했으나, 다양한 산업, 다양한 Function 사람들과 만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출 수 있었고요. 또한, 편안하고 쉬운 길을 통해 고객을 만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원칙을 중시하고 그러한 이유를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진정 고객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잘 몰랐으나, 가족 여행과 테니스, 골프 등 자기 관리를 통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 중이에요.

예비 삼정인 여러분, 처음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처음이 주는 설렘에 집중하여, 곧 펼쳐질 신입 회계사로서의 삶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최연택 Manager(ICE2)

‘돌아보니 회계사란 직업이
매력적인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네요!'

법인에 입사한 이후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돌이켜 보면 입사 초기 저는 회계사로서 특히 회계 감사인으로서 회계법인에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을지 상상하지 못했어요. 감사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에 실망하고, 회계법인을 하나의 디딤돌 삼아 제 경력을 찾고자 했죠. 그런데, 감사인의 업무를 하다 보니 나름 이 직업이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각기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직업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후배 회계사님들, 회계감사 환경은 아직까지 많이 바뀌지 않았고 회계사의 지위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의 환경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회피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외부환경에 민감히 반응하기보다 일에 대한 보람을 통해 입사 당시 여러분이 가지셨던 포부를 이루고 멋진 회계사의 모습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설영식 S.Analyst (Deal Advisory2)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때, 성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듯 사회초년생일 땐 실수도 하고, 힘든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입사 초기를 떠올려 보니 회계사가 되었다는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엑셀에 서툴고, 꼼꼼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실수를 번번이 했고, 선배들의 Review가 저를 나무라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실수가 있었기에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선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질문하고 배워야 했는데’라는 생각도 들곤 해요. 제가 만 4년을 삼정KPMG에서 근무하며 적지 않은 회계사 후배들을 만났지만 기억에 남고 인간적으로 친해진 경우는 제게 많은 질문을 해 저를 긴장시키고, 또 종종 크고 작은 실수로 저에게서 선배 포스를 방출하게 해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비 삼정인 분들도 실수를 두려워 말고 선배들에게 많이 묻고 성장해 가길 바랄게요.



이현호 Analyst(Deal Advisory5)

“연하는 본부를 택하여 입사했기에, 자부심을 갖고 성장 중이에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지난 1년은 27년 제 인생에서 가장 긴박하게 환경과 가치관, 생활 등이 바뀐 1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작년 7월 회계사에 합격하고, 회계사로서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2달정도 있었는데요, 입사할 때 발생한 여러 업계 이슈들로 인해 긴박하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제 선택이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삼정KPMG의 현재 본부에 지원하게 됐어요.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법인을 결정하실 텐데요,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삼정KPMG와 함께 커리어를 쌓고,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바릴게요.



민정원 Associate(JP)

“본부귀속 입사로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입사 초,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법인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자 JP본부 귀속으로 입사했고, 본부귀속에서 주는 안정감이 저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어요. 본부 선배님들이 OJT에 매우 적극적이시고, 한 가지를 물어보면 열 가지를 알려주셨기에 입사 초와 비교해 업무적인 면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비즈니스 매너, 회계사로서 갖춰야 할 도덕적 자세 등 업무 외의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신입 시절 허둥대고 자신감이 부족했던 모습에서 지금은 전문가로서 당당함을 갖게 되었어요. 또한, 본부이동 없이 지속적으로 맡은 일을 진행함에 따라 제가 담당하는 고객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감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민엽 Senior(B&F3)

‘역동적인 삶 속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입사 이후 변화된 제 모습을 키워드로 정의한다면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쇄된 책 속의 고정된 활자만을 상대해야 했던 수험생 시절과는 달리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고객과의 실무는 참으로 낯설었어요. 그러나 ‘창조적인 파괴’라는 말과 같이 이러한 역동적인 삶 속에서 회계사로서의 제 자신을 길러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실무적인 관행을 방배로 내세우는 고객을 상대하기 위한 창으로 수험생 시절 동안 단순히 합격만을 위해 공부했던 기준과 규정을 다듬었으며 자신감을 가진 전문가로서 일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야말로 삼정KPMG에 입사한 후 달라진 점이자 앞으로 회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할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인재양성소

Talk + Play + Love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Samjong News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김현식 Manager가 **안승현 S.Senior**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다양한 시각으로
업무에 임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Domestic Tax1
김현식 Manager

안녕하세요. 먼저 부족한 저를 칭찬해주신 IGH본부의
장재준 S.Manager님께 감사드립니다. 회계처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장 먼저 매니저님을 떠올리게 되는
바람에 귀찮게 해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셨잖아요.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야말로 매니저님의 해박한 지식과
막힘 없는 언변에 늘 감동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법인에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IA/FR본부의 안승현 S.Senior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안승현 S.Senior님을 통하여 우리 법인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승현 S.Senior님은 IA/FR본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데, 회계나 세무와 같은 영역에 갇혀 있는
제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안승현 S.Senior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법률 측면에서의 고객 니즈를 생각해볼 수도 있었고,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속한 다른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장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난번
우연히 민방위 훈련장에서 만나 장시간 대화했던 기회를 다시 갖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바쁜
시간 쪼개서 조만간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결혼을 고민하는 안승현 S.Senior에게 감우성,
엄정화 주연의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보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안승현 S.Senior님에게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추천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로맨스/멜로/드라마 | 감독 유하 | 주연 감우성, 엄정화

이만교의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로 2002년에 개봉한 유하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경제적 조건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뒤에도 옛 연인과 ‘주말 동거’를 하는 ‘바쁜 여자’ 연희(엄정화)와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한 여자에게 묶이기 싫어 결혼을 거부하는 남자 준영(감우성)이 주인공으로, 사랑과 성(性), 결혼을 둘러싼 세태를 다뤘다. 당시 전국 관객 110만을 기록한 만큼 꽤 흥행한 작품이다.

*<Culture Relay>는 동료 또는 선배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책 혹은 영화 등을 선물하는 릴레이 형식의 칼럼입니다.

NCP로 새로운 경력 개발에 나선 삼정인! 새로운 도전으로 성장의 날개를 달다

New Challenge Program(NCP)은 삼정인들의 다양한 경력 개발을 위해 다른 본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본부 이동제도이다. NCP로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는 삼정인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경력 개발할 수 있어 좋아요!’
JP본부 전중희 Senior(前 Deal Advisory3)

지난해 저는 NCP를 통해 일본사업본부(JP)에서 일본계 회사와 한국계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제가 NCP로 본부 이동을 한 이유는 JP본부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을 비롯하여 한국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고, 따뜻하고 가족적인 본부 분위기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NCP는 사내에서의 본부 이동이고, 주변에서 NCP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에 초반의 업무 미숙에 대해 많이 이해해주시고,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런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초반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 점이 아마 NCP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기존의 경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력 개발을 위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어려움도 많고,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삼정KPMG는 법인 내에서 새로운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를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어떤 계획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요. 또, 본부 이동을 통해 타 본부의 업무를 이해하고, 각 본부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 본부로 이동하며 제가 Deal Advisory본부에서 실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불특정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일, 경제적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에 확신을 주는 일, 재무제표의 이용자일 때 그 가치를 더욱더 알게 되었고, 직접 그 일을 하면서 그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NCP 뿐만 아니라, 해외파견 대비반 운영, Korea Desk 파견 등 삼정KPMG에서는 개인의 경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도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법인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에 ‘즉시 도전’ 하세요!”

Domestic Tax1본부 이건주 Associate (前 B&F3)

2015년 9월에 입사했으니, 올해로 3년 차네요. 입사 당시 저는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 B&F3본부로 귀속 입사하여, 1년간 업무 경력을 쌓다가 Domestic Tax본부에 NCP를 신청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법학이란 학문에 흥미를 느꼈고 회계사가 할 수 있는 법학 중 하나가 세법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잘하고 싶은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사실, NCP를 지원하기 전에 ‘새 본부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어 망설여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의 선배 및 동기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때 진취적으로 ‘즉시 도전’하라는 말을 건네주더군요. 하하. 본부 이동을 하고 나니, 이러한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전문가 집단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잖아요.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변의 선배님과 동료들에게 질문하며 본부 분위기나, 새로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NCP를 망설이는 삼정인이 계신다면 저 역시도 ‘즉시 실행’하시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어요. 시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아쉬울 만큼 좋은 제도에요. 앞으로도 저는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인의 발전과 법인의 성장이라는 2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요!”

Deal Advisory4본부 이수한 S.Analyst (前 IM3)

2013년 입사해 감사본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NCP로 M&A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사실, M&A 전문가가 되는 것이 대학교 때 꿈이었거든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생긴 동경이자 선망이었죠. 그렇게 대학 시절에 진로를 정했고 이왕이면 전문가가 되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회계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NCP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때부터인 것 같네요.

본부 이동 후 팀원들과의 협업의 중요성도 알게 됐고, 그 속에서 나름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보람도 느꼈어요. 입사 후 가장 길고 어렵게 느껴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복잡하고 쉽지 않은 거래였지만 파트너부터 스태프까지 하나 되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참 어렵게 느껴졌던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잘 종결되니, 뿌듯했고 조금은 전문가로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NCP로 본부 이동을 희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NCP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들은 조언 중 하나가 ‘너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봐’라는 것이었

죠. 새 본부로 이동하면 자신의 진로를 확정 짓는 계기가 되니 신중하라는 의미와

함께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단 말씀이었어요. 가장 하고 싶은 일

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따른 답을 얻었다면 NCP에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인에게 핫한
필라테스 운동 체험기

일석이조,
필라테스로
건강과 동기애
모두 챙겨요!

건강을 잃으면 행복도 잃듯,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 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입사 2년 차에 접어든 조해정 Associate는 동기들과 함께 필라테스 운동으로 건강과 업무의 활력 모두 찾았단다. 그녀가 들려준 필라테스 체험기를 통해 신선한 자극을 받아, 미리 여름 준비에 나서보자!



좌측부터 B&F3본부 조해정 Associate, Domestic Tax1본부 신유지 Associate, B&F3본부 김정인 Associate

| 코어 근육을 단련해주는 필라테스 Start!

안녕하세요! 저는 B&F3본부의 조해정 Associate입니다. 신입사원 연수를 받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의 시즌이 지나고 입사 한 지 2년이 되어가네요. 빠르게 흐른 시간만큼이나, 일하면서 몸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종합병원이 따로 없었죠. 때마침 대학 시절부터 친구인 유지를 만나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니, 우연히 필라테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필라테스가 요가와 비슷하게 유연성 향상에 가까운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래 필라테스는 치료목

적으로 만들어진 운동이라고 해요. 평소에 앉을 때,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앉으면 자세가 틀어져 몸에 무리가 가는데, 필라테스를 하면 배나 등에 있는 코어 근육을 잡아줘 평소 생활할 때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자세를 교정해준대요. 유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며, 자세 교정 등에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던 정인 언니도 함께 하여 필라테스를 배우러 가게 되었어요. 특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삼정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자 ‘Talk+Play+Love’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됐어요.



“

필라테스로 몸을 움직여주니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그간 몰랐던 내 몸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동료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

바쁜 생활 속 내 몸을 들여다 본 시간

셋이 함께 간 필라테스 센터는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근처에 있는 곳 인데요, 4:1 혹은 1:1 클래스로 선택할 수 있고, 클래스 시간도 퇴근 후 시간대뿐 아니라 점심 시간대도 있으니, 여의도 필드가 많은 B&F 본부의 경우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잠깐 다녀와도 무리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센터에 가서 인바디 검사와 체형분석부터 시작했어요. 오래 앉아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어깨도 구부정하고, 골반도 미세하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걸보기에는 다들 날씬해도 체질량지수가 높게 나와서 슬펐어요. 강사님께서 각자 필라테스를 시작한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우리의 체형과 각자 원하는 목적에 맞게 방향을 잡아주는 상담을 마친 후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자세교정부터 시작했는데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서있는 자세나 앉은 자세, 대부분이 잘못된 자세더라고요. 평소에 어떻게 앉아있어야 몸에 좋은지부터 새롭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좀 더 운동강도를 높여서 여러 근력운동을 했는데,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평소에 안 쓰는 속 근육이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하고서는 근육이 놀라서 그런지 며칠간 허벅지나 팔 근육이 땅기기도 했어요. 하하.

하지만, 고된 업무에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기분 좋은 경험 이었어요. 장시간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엑셀과 써를하며 근무하다 필라테스로 몸을 움직여주니,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내 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뿐만 아니라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동료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필라테스로 건강 챙기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Talk+Play+Love 체험 이후에 정인 언니, 유지와 함께 필라테스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가끔 셋이 운동을 마치고, 운동한 의미가 무색해질 만큼 맛있는 것도 먹으며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다보니, 비슷한 고민도 있고, 공감도 되어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힘든 일 있을 땐 서로 위로도 받고요. 필라테스로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꾸준한 운동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삼정인이 되어 업무를 수행할 때도 더욱 활기차게 임할게요!

끝으로 정인 언니, 유지에게 한마디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정인 언니, 유지야! 항상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작하기 어려웠는데 함께라서 더 자극받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다들 일이 바쁘더라도 건강 챙기고, 행복하자~아프지 말고!”

문 필라테스

몸매 교정 및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필라테스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 직장인을 비롯해 임산부, 아이들을 위한 필라테스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여의도파크센터 A동 2004호
-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moonpilates1>
- 예약 문의: 02-6013-8003
- 카카오톡 ID: moonpilates

중부 유럽의 중심, 체코의 문화와 에티켓

체코는 체코인과 슬로바이카인이 합쳐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993년 1월 1일 평화적으로 2개 공화국으로 서로 분리·독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서유럽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던 체코에 문화와 에티켓에 대해 김민성 S.Manager의 소개로 알아본다.



| 동유럽? NO! 중부 유럽에 위치한 체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유럽'이라고 한다면 크게 서유럽,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로 구분하고, 체코는 당연히 동유럽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구 냉전 시절의 공산권의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체코인들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단연코 체코는 중부 유럽 (Central Europe)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체코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14세기 카렐 4세 시절, 그는 보헤미아(현재 체코 서부)의 왕이자, 유럽의 중심인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및 이탈리아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카렐 4세 통치 기간에 프라하는 신성로마제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중부 유럽 최초의 대학(카렐대학)을 설립하고, 독일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등 체코는 명실상부한 유럽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체코는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과 양질의 노동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물론 다수의 다국적 제조 기업들이 유럽 내 생산 거점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 체코 생산법인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사 및 협력사들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고, 대한항공이 체코항공 지분을 인수했으며, 최근에는 네센타이어가 유럽 타이어 공장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체코 Etiquette Plus+

1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는 콧물이 날 경우 회장실 등으로 가서 코를 푸는 것이 예의이나, 체코에서는 콧물이 날 경우 계속해서 코를 훌쩍이는 것이 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식사 또는 미팅 시 바로 앞에서 코를 푼다고 해서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코(Czecho)가 아닌 Czech Republic!

흔히 우리는 '체코'라는 국호로 체코를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따라서 체코인 및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할 시에는 반드시 '체크(Czech)' 또는 '체크 리퍼블릭(Czech Republic)'으로 명칭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익숙한 체코라는 표현은 1918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 독립 시에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라는 국호로 독립국가를 형성한 데에서 기인하는데요, 이는 Czech과 Slovakia를 연결하는 접속사인 'o'가 양 국가 사이에서 'and'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93년 양 국가가 각각의 공화국으로 분리된 현재에는 체코가 아닌 Czech Republic으로 명칭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체코인들과 한국 출장자 분들과 같이 영어로 회의를 하는 중에 한국 출장자 분들이 가끔 체코라는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 쉬는 시간에 이를 정정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국가의 명칭은 정확한 표현으로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인당 맥주 소비량 세계 1위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하면 독일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1인당 맥주 소비량 세계 1위는 바로 체코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맥주인 라거 계열의 맥주가 처음으로 만들어 진 곳이 바로 체코입니다. 1824년 체코 플젠(Plzen)에서 만들어진 맥주는 '필스너'라고 불리며, 이는 곧 라거 맥주의 고유명사처럼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플젠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필스너 맥주는 오리지널(원조)이라는 의

미에서 '필스너우르켈(Pilsner Urquell)'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필스너우르켈 이외에도 지역별로 약 70여 가지가 넘는 지역 고유의 맥주를 가지고 있을 만큼 체코인들의 맥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이 위치한 오스트라바 지역의 맥주인 라데가스트(Radegast)를 즐겨 마시고 있으며, 혹시라도 삼정KPMG 가족 여러분들도 체코 여행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필스너우르켈, 코젤, 부드바이저, 스타로프라멘 등 다양한 체코 맥주를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NTACT US

체코 Korea Desk 김민성 S.Manager
Tel. +420222123101 E-mail. minsungkkim@kpmg.cz

Global Etiquette

3 식당에서 종업원을 직접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담당 종업원이 테이블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급할 경우에도 손을 들거나 직접 부르지 말고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해 보세요.

4 회사 내부의 짧은 미팅이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일정을 확인하고 미팅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따라서 10분 뒤에 미팅을 할지라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공식 미팅 요청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체코 Korea Desk

체코 Korea Desk는 2007년 설립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 GS 및 넥센타이어 등)에게 감사, 세무, 컨설팅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Korea Desk는 투자인센티브(정부보조금) 협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체코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로 활동하며 체코에서 'The Clear Choice'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ring the KPMG Story to life…!

2017 PPC Officer Workshop 개최

지난 5월 16일 각 본부의 People 리더인 PPC Officer를 대상으로 KPMG Story Workshop을 진행했다.

이번 Workshop에서는 본부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과 본부원 개개인의 목표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칭 리더십을 익히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1



2

1. KPMG Story 이해 세션 2. KPMG Story 내재화 실천 방안 논의

KPMG Story를 내재화하기 위한 금년도 첫걸음으로 각 본부의 PPC Officer를 대상으로 상반기 KPMG Story Workshop을 진행했다. KPMG Story를 본부에 내재화 하는 데 있어 PPC Officer는 구성원들에게 KPMG Story를 통한 변화의 과정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PPC Officer는 2016 GPS 결과를 통해 구성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직급별 세대의식과 특징을 고민해보고 KPMG Story를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세워봤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과 보다 나은 협력을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업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Coaching Communication 스킬'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일의 몰입의 조건, KPMG Story

법인 구성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일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까? 관련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한 경력 개발을 넘어 소명 의식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조직에 머무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발휘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바로 KPMG Story를 모든 구성원의 삶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삼정KPMG에서 수행하는 일을 통해 사회와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믿음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신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구성원들이 바라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KPMG Story Workshop에서 PPC Officer는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하여, 'KPMG Story 성공 스토리의 체험과 공유', '현장에서의 KPMG Story의 지속 실천', 'KPMG Story와 인사제도와의 연계' 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러한 PPC Officer들의 노력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KPMG Story를 체화함으로써 업무의 몰입을 높이고, 개인의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공 체험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다.

이번 Workshop을 통해 PPC Officer는 각 본부가 KPMG Story 내재화 단계의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살펴봤으며, 다시 한번 KPMG Story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KPMG Story를 내재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속에서 PPC Officer들이 이번 Workshop에서 배웠던 코칭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활용해 구성원들과 좀 더 의미 있는 대화와 협업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해본다. 한편, PPC Officer를 대상으로 열리는 KPMG Story Workshop은 하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 삼정KPMG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속적으로 KPMG Story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We make the KPMG Story.

|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코칭 커뮤니케이션

조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칭은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돋는 일' 또는 '인생, 경력, 비즈니스와 조직에서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로 정의된다.

구성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이끌고, 잘 하는 부분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코치가 되어주는 것은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KPMG Story Workshop에서는 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실습해봄으로써 PPC Officer로서 자신의 대화스타일을 점검하고 개선



3. 코칭 커뮤니케이션 실습

MONTHLY NEWS

삼정KPMG 전문성과 신뢰 강화 위한 보직인사 단행

삼정KPMG는 5월 30일 정기사원 총회를 열고 파트너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감사부문, ▲Deal Advisory 부문, ▲품질관리실, ▲COO(Chief Operating Officer) 등 4명의 부문 리더급 보직임명이 단행됐다.

감사부문 리더에 신경섭 대표, Deal Advisory 리더에 구승회 부대표가 각각 임명됐다. 그간 감사부문을 이끌어 왔던 서원정 대표는 품질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실장으로 이동하

며, 금융사업본부를 이끌어 온 한은섭 부대표는 COO 역할을 부여 받았다.

삼정KPMG 김교태 CEO는 “법인의 핵심가치인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으로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미니인터뷰 새로운 리더들의 소감



감사부문 리더 신경섭 대표

최근 회계업계는 변화, 아니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Clear Choice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2017년 중점 시행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보수를 정상화하고, Quality Audit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Audit / Non-audit 부문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SPEED 경영을 하겠습니다. 넷째,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우수 인력 유지와 영입에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가 가진 열정을 모두 쏟아 감사부문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니,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품질관리실실장 서원정 대표

최근 대형 회계 스캔들과 독립성 위배 사건들로 회계업계의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규제환경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실패나 법규위배는 예상을 뛰어 넘는 큰 피해를 개인과 회계법인들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RMP 및 DPP Head로서 법인의 Quality와 위험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변화와 소통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고의 서비스 품질 및 완벽한 위험관리가 법인 위상을 제고하고, 제재나 소송으로 인한 큰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Business 활동’이라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eal Advisory 부문 리더 구승회 부대표

지난 3년간 Deal Advisory는 평균 20%의 성장을 이루며 법인의 Growth with Profitability를 견인하여 왔습니다. DA 구성원의 열정적인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앞으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며, 타 Function과의 협업 강화, 시장에서의 차별화, 주요 Product에 대한 Focus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Vision 2020 달성을 위해서는 건강한 성장과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과의 보다 많은 소통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COO(Chief Operating Officer) 한은섭 부대표

KPMG에 입사한 지 27여 년 만에 가장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읽은 책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면서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정KPMG의 모든 파트너 및 구성원들이 법인의 성장을 이루고 Vision 2020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어 업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좋은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정KPMG가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를 이루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정KPMG,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 2년 연속 우승

삼정KPMG가 지난 5월 27일에 열린 '제13회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삼정KPMG, 삼일 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참가한 이번 축구 대회에서 삼정KPMG는 풀리그로 진행된 예선에서 1위의 성적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딜로이트안진과 치러진 결승전에서 삼정KPMG는 전반전 선제골에 이어 후반 추가 골을 성공 시켜 2대0으로 우승을 확정 지었다. 삼정KPMG 축구동호회회장 하병제 전무(Deal Advisory1 본부장)는 "삼정KPMG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내 동호회들을 지원 중이며, 이를 통해 다져진 축구동호회의 강한 팀워크가 2연패를 이끈 원동력"이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Audit Committee Handbook 교육 프로그램 개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5월 19일에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위한 Audit Committee Handbook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삼정KPMG ACI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위원회 활동 방안 등을 모색하며 감사기구의 위상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공유했다.

* Contact: 삼정KPMG ACI 리더 김유경 상무
youkyoungkim@kr.kpmg.com

'Partner's Workshop'으로 화합 다져

삼정KPMG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2박 3일간 경주에서 'FY2017 Partners' Workshop'을 개최했다. 파트너들은 KPMG Story를 내재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실현과 함께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삼정KPMG, 업계 최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삼정KPMG는 Big4 회계법인 최초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KPMG 인тен시브 스타트업 서포트(KPMG Intensive Startup Support, KISS)'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했다. KISS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단계를 지나 제품 및 서비스의 프로토타입 등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10곳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7개 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사업전략, 해외 진출, 기업협력, 매각 및 상장 등 4가지 분야 중 선택한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 지원을 받으며, 구체적으로는 해외 법인 설립,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분석, 투자자 탐색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 Contact: 삼정KPMG 스타트업지원센터 리더 윤권현 상무
kyoon@kr.kpmg.com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y)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 This is what we want to be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정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